

style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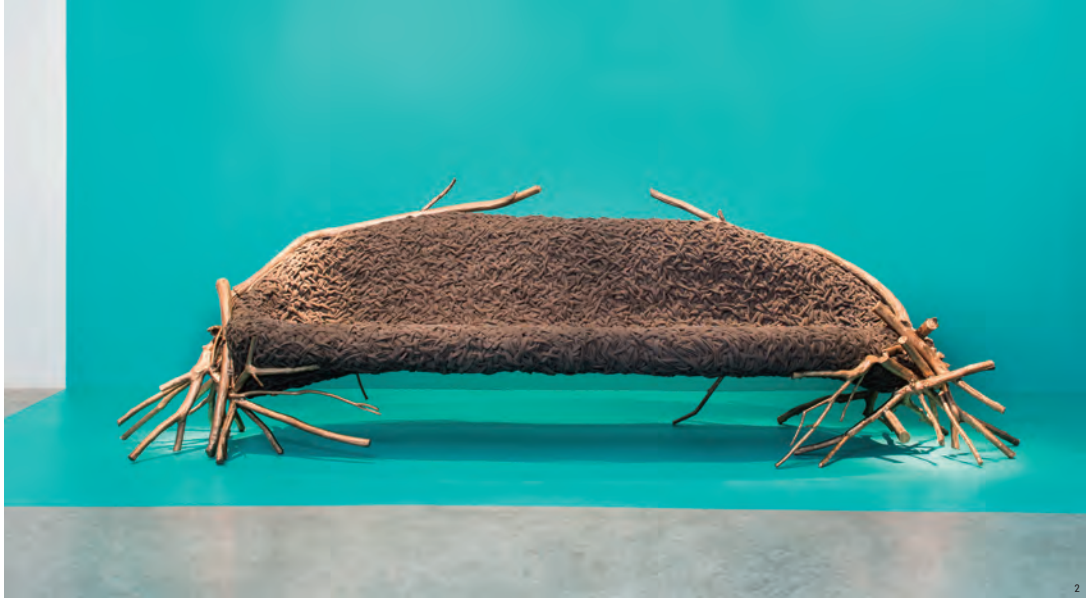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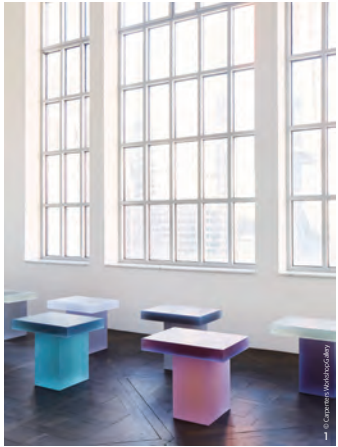
LIMITLESS
HAPPINESS



MAY 2018

안개 속 산책

파리와 뉴욕의 아트 퍼니처 메이저 갤러리인 '카펜티스 워크숍 갤러리'에서 주목하며 신성 작가로 떠오른 박원민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디자인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파리를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몽환적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닌 '헤이즈Haze' 시리즈를 발표한 후 디자인 전문 매거진 <월페이퍼>에서 꼽은 'World's Top Influential Designers'에 이름을 올리며 평단과 컬렉팅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안개 낀 어느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광경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헤이즈 시리즈는 레진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사용해 플라스틱보다는 투명하고 유리보다는 불투명하며 안개 속을 산책하는 듯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1 Haze Stools (new colours), 2015, coloured resin.
2 Noah Bench, 2017, cast aluminum and woven fabric, edition of 8, courtesy of Friedman Benda and Estudio Campana.

태초의 자연을 표현하다

브라질 출신의 캄파나 형제(Campana Brothers)는 알레시, 에드라 등의 리빙 브랜드뿐 아니라 렌다, 루이 비통 등 패션 브랜드와 협업한 작업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형제 디자이너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브라질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원시적이고 태초적인 작품을 펼쳐내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프리드먼 벤다(Friedman Benda) 갤러리를 통해 발표한 '하이브리디즘(Hybridism)'은 아마존의 황폐화와 세계 정세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불안감을 예술로 극복해보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직물과 캐스트 알루미늄 등을 사용해 나뭇가지와 원시 동물 등 광활하지만 위협에 처한 남미의 자연을 표현했다.

“Beyond Furniture,” *Style H Magazine*, May 2018.
FRIEDMAN BENDA 515 W 26TH STREET NEW YORK NY 10001
FRIEDMANBENDA.COM TELEPHONE 212 239 8700 FAX 212 239 8760